**사도행전 ①**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한 사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신 성령에 대한   
기록이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사도들과 교회가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는 힘이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성령 행전'이기도 하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지역의 벽을 넘어 땅 끝을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땅 끝을 향한 길 가운데   
현재 우리가 서 있다.

**사도행전의 구조**

|  |  |  |  |
| --- | --- | --- | --- |
| 1~2장 | 3장~8:3 | 8:4~11:18 | 11:19~28장 |
| 교회의 시작 | 예루살렘 교회 |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 | 땅 끝까지 이르는 교회 |

**교회의 시작(1~2장)**

**새로운 시작(1장)**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사도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다. 이 기간은 교회의   
탄생과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셨다(8절). 그리고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재림의 때까지 복음  
전도 사역의 막중한 책임이 사도들에게 넘겨진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 후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기도하는 것이었다  
(12절).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대신 맛디아를 사도로 선출함으로 비워진  
직무를 채웠다. 지속적인 기도와 12사도의 회복으로 성령의 임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2장)**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 오순절에 이르러서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위에 강하게 임했다(4절). 모든 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들의 입에서 각   
나라의 방언이 나온 것이다.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몹시 놀랐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날에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이 3천   
명이나 되었다. 성령의 충만함은 베드로를 훌륭한 설교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교회를 탄생시켰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았고,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부흥을 맞이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14~41절)**

|  |  |  |
| --- | --- | --- |
| 14~21절 | 22~36절 | 37~41절 |
| 지금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 예수님은 누구인가? |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초대교회의 모습(42~47절)**

|  |  |
| --- | --- |
| 말씀 | 사도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 |
| 성도의 교제 |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 |
| 기도 | 마음을 같이해 드리는 기도 |
| 성령의 역사 | 기사와 표적 |
| 구제 | 소유를 팔아 필요한 성도에게 나눠 줌 |
| 경건한 삶 | 매일 성전에 모여 예배드렸고, 가정에서도 예배의 삶이 이어짐 |

**예루살렘 교회(3장~8:3)**

**복음 전파와 유대 공회(3장~4:31) ① - 외부 문제**

이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처음에 복음 전도장소는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걸인을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베드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3:12~26절)**

|  |  |  |
| --- | --- | --- |
| 12~15절 | 16절 | 17~26절 |
| 예수 그리스도 소개 | 기적을 일으킨 믿음 | 회개 촉구와 구원의 가능성 |

|  |
| --- |
|  |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무려 남자만 오천 명이나 되었다(4:4).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4:1~2),   
다음 날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는   
재판 자리에서도 담대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했다. 그리고 어떤 위협이 있어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라고 당당하게 맞섰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치유   
받은 걸인과 많은 목격자가 있었기에 두 사도를 풀어 줄 수밖에 없었다.  
사도들이 풀려나자 믿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리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또다시 임했다. 이로써 초대교회는 강력한 복음 선포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다(4:23~31).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적 삶(4:32~5:11) ① - 내부 문제**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선포되었던 초대교회에 큰 은혜가 가득했다(4:33). 그 결과,  
공동체에 관한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었고 소유와 재물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변화되었다. 온 성도가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는 모습이 나타났다(4:34~35).   
그 가운데 나중에 바울의 동역자가 된 바나바가 있었다(4:36~37).  
하지만 교회 내에 불안한 요소들도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 준 '위선적   
신앙'이 그중 하나였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문제를 민감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난다(5:1~11).

**복음 전파와 유대 공회(5:12~42) ② - 외부 문제**사도들의 복음 전도는 더욱 힘을 더해 갔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인기가 더해 가는 현상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서 사도들을 또다시 투옥했다.   
이번에는 사도들의 변론에 다들 흥분해서 즉시 처형하려고 했다. 다시금 교회와   
사도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하지만 가말리엘이라 하는 유대교 지도자를 성령께서   
움직이셨다. 그는 사도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자고 주장했고, 사도들은   
매질을 당한 뒤에 풀려나게 되었다(34~40절). 그러나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 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래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다했다(41~42절).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적 삶(6:1~7) ② - 내부 문제**예루살렘 교회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성도 간의 갈등   
문제였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생긴 갈등은   
교회가 하나로 뭉쳐지는 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1절).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해 집사로 세웠다. 구제 사역을 전담할 집사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함으로써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강건해졌다(5~7절).

|  |
| --- |
|  |

**복음 전파와 유대 공회(6:8~8:3) ③ - 외부 문제**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특히 뛰어난 변론으로 유대인들을 곤경에 처하게 했다(6:8~10). 그러자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와 증인을 내세워 스데반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6:11~15).  
하지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공회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7:2~50).   
그의 설교는 매우 정중했지만 날카로웠고, 부드러움 가운데 신랄한 비판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들이라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음을 책망했다(7:51~53).

**스데반의 설교(7:2~53)**

|  |  |  |  |
| --- | --- | --- | --- |
| 2~38절 | 39~43절 | 44~50절 | 51~53절 |
| 이방 땅에 현존해  계신 하나님 |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 손으로 지은 성전에  대한 경고 |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스데반은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었다(59절). 그의 순교는 유대교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은 눈물과 함께 큰 감동을 안겨 준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55~56절). 또한 순교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용서의 기도를 올렸다(59~60절).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큰 위기였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새로운 사역을 도모하신다.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 장차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할 인물이 오버랩 되어 등장한다. 아주 극적인 등장이 아닐 수 없다.

**유대와 사마리아교회(8:4~11:18)**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8:4~25)**

일곱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 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4~8절).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협력함으로써 빌립의   
사마리아 선교는 더 큰 열매를 맺게 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며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14~17절).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혼합 종교에 물든 사마리아였기에 오해도 발생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기도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한 것이다(18~24절).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어 갔다.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복음 전파(8:26~40)**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즉 간다게('왕'이라는 뜻)의 재무 담당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어 그를 만나게 하셔서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복음을 들은 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다(36~38절).  
빌립의 선교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경을 넘어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범위를 넓혀 간다. 특히 이 사건은 절대 유대교로는 개종할 수 없는 이방인이자 거세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 획기적인 사건이다(참조 신 23:1). 빌립의 선교는 복음 전도의 지향점을 제시한 사건이었다.

**사울의 회심과 복음 전파(9:1~31)**사울의 회심은 기독교인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루어졌다(4절).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지식, 권세 그리고 확신으로 무장하고 있던   
사울에게 있어 모든 것이 근원적으로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3~9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사울의 회고가 사도행전에 두 번이나 더 등장한다(22, 26장).  
그 사건으로 인해 눈이 멀고 큰 충격에 휩싸여 있던 사울에게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셨다. 사울은 아나니아의 기도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곧바로 세례를 받았다. 그는 이제 유대교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다(17~19절).  
회심한 바울은 다메섹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큰 배신감을 느낀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다  
(20~24절).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울은 다메섹 성에서 극적으로 탈출했다.  
이러한 사울의 변화는 예루살렘 교회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바울이 회심한 지 3년이나 흘렀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사울을 피했다. 이때 구브로  
출신 레위인 요셉, 곧 바나바(권위자, 위로의 아들)가 중재자로 나섰다. 바나바의 중재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게 되었다(26~28절).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열심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제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다(29절). 사울의 회심으로 교회의 상황은 '위협과 살기'의 불안함에서   
'평안과 든든함'으로 변했다. 교회는 박해를 이겨 내고 점점 강하게 성장했으며,   
복음 전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31절).

**베드로의 복음 전파(9:32~11:18)  
  
① 룻다에서의 복음 전파(9:32~35)**  
베드로가 룻다에서 중풍병에 걸려 8년 동안 누워 지내던 애니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고쳐 주었다. 이 사건으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② 욥바에서의 복음 전파(9:36~43)**  
룻다에서 애니아를 고친 베드로가 욥바에서는 다비다(도르가)라는 여 제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한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마 9:18~26) 기도하는 가운데 죽은 도르가를 살려 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똑같이 행했고, 욥바에서도 구원의 물결이   
넘쳐났다. 욥바에서 베드로는 여러 날을 더 머물렀다. 그가 머물렀던 집이 피장 시몬의 집이었는데, 가죽 제품을 만드는 피장이라는 직업은 당시 부정하다고 천시받는   
직업이었다. 베드로가 피장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그가 유대교의 엄격한 규율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③ 가이샤라에서의 복음 전파(10:1~11:18)**  
가이사랴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사건이 되었다. 가이사랴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관장하는 총독의 주재지인 동시에 로마 군대의 주둔지인   
도시였고, 고넬료는 그곳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친유대교적   
이방인이었다(10:2).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각각 환상을 보여 주셔서 만나게 하셨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물어 주셨다.